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서포터즈 4기

작아지는 카메라, 커지는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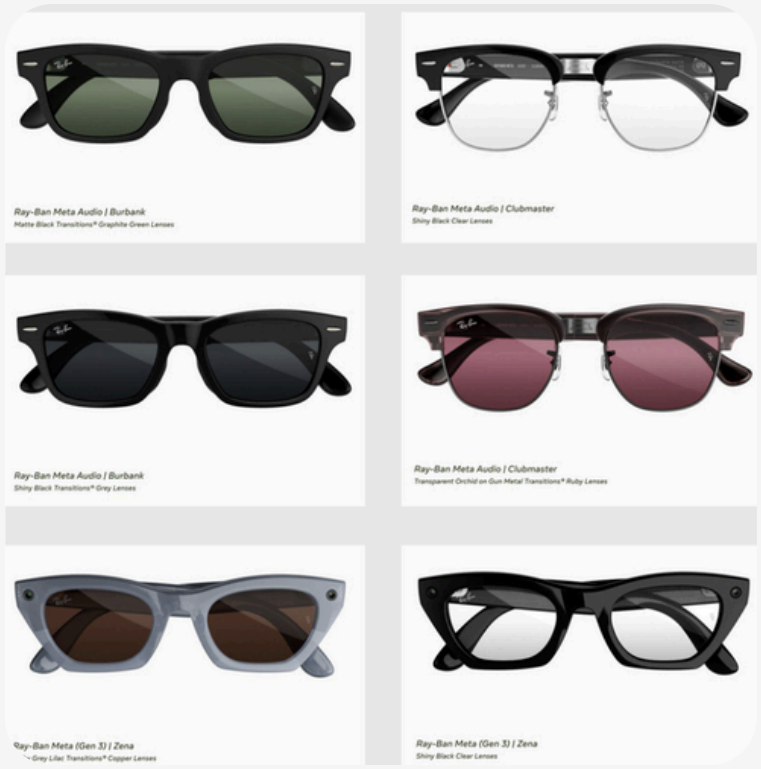
Ai 안경부터 초소형 촬영 기기까지,
우리의 권리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기술

#불법 촬영 **# 부정행위** **# 책임과 보호**

CARD NEWS TITLE 01

일상에 스며든 AI





두 사진의 안경들은 모두 AI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일반 안경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AI 안경은 카메라, 마이크, 센서 등을 탑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물론, 음성 명령과 AI를 활용한 정보 검색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주는 편리함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CARD NEWS TITLE 02

촬영된 정보는 어디로 갈까?



스마트 글래스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는 기기 내 AI 프로세서 또는 연결된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 AI를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오픈이어스피커의 음성이나 렌즈 디스플레이의 문자 및 이미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CARD NEWS TITLE 03

모르는 사이 촬영 중..



일반 안경과 유사한 외형으로 촬영이나 녹음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청하기 어렵고 SNS나 외부 앱과 API로 결합해 실시간 통화나 사진 공유 등의 확장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실시간 유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CARD NEWS TITLE 04

어디나 악용은 있다.

얼굴 하나로 개인정보를 알아낸다면?

2024년 하버드대 학생들은 스마트 글래스와 얼굴 검색 기술 등을 결합한 'I-XRAY'를 공개했습니다. 연구 및 시연 프로젝트였지만, 얼굴 이미지와 공개된 정보를 연결해 개인의 신원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촬영 사실조차 모른다면?

2025년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 대상으로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SNS에 게시해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등 사생활 침해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까지 위협한다면?

최근 세무사 시험, 토익, 수능 등에서도 스마트 글래스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술의 악용은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CARD NEWS TITLE 05

기술은 발전해도, 지켜야 할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 안경 시장에 진출하며 스마트 글래스는 점차 우리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활용 가능성과 수요가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와 부정행위 등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모두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 이용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사용
- 제조사: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기능과 안전장치 강화
- 사회: 기술 반전에 발맞춘 제도적 대응과 보호 체계 마련

기술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금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닙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CARD NEWS TITLE 06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11.09.), 「글로벌 신기술·개인정보 심층분석 보고서(스마트 글래스 편)」

https://alwaysg00d.tistory.com/entry/meta-ai-glasses-korea-price-models